

“재가불교 활성화, 근기 맞는 수행이 원동력”

윤종갑 부산대 교수, 부산지역 재가불교 활성화 원인 분석

부산지역 불자들의 수는 10년간 8%가 증가해 한국 종교인구 변화 중 가장 현격한 증가를 보이고 있다. 흔히 부산 경남의 불자들이 전국사찰의 경제적 토대가 된다고 얘기할 정도다. 이런 부산불교 활성화의 원인을 분석한 자료가 공개됐다.

윤종갑 부산대 교수는 불교학연구회가 1월 24일 개최한 2015겨울 워크숍 ‘재가자 수행열풍 어떻게 불 것인가’에서 부산지역 재가불교 활성화 원인을 △도심지에 범어사·통도사·삼광사 등 대형사찰이 존재 △친목모임의 실행단계 활성화 △불교대학 통한 교리공부 중시 등으로 분석했다.

윤 교수는 “부산지역에서는 근대화와 더불어 불교를 새롭게 인식하고 신앙하는 풍토가 형성됐는데 특히 재가자가 운영하는 선원이나 공부모임이 발달했다”며 “이것이 다양한 근기에 맞는 수행법이 발달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윤 교수는 조계종부산연합회를 중심으로 한 부산 재가자 수행 현황을 소개했다. 조계종부산연합회는 지난해 12월 6일부터 3월 5일까지 90일 동안 부산지역 조계종 사찰 20여개 도량에서 재가자 안거수행을 진행하는데, 2천여명이 참여할 정도로 인기다. 안거수행에서는 각 사찰 주지 스님이 수행 정도를 점검하고 자자포살법회를 진행한다.

윤 교수는 “조계종부산연합회에서 실시하는 안거수행의 가장 큰 성과는 자신에게 맞는 맞춤형 수행프로그램인 점”이라며

“도반과 함께 수행함으로써 수행에 대한 의지와 중요성을 다질 수 있게 하는 것이 주효했다”고 강조했다.

윤 교수는 “친목모임, 생활속 수행 등이 재가불교를 활발하게 하는 지름길”이라며 “부산지역에서 현재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안거수행이 이 지역에만 그치지 말고 전국으로 확산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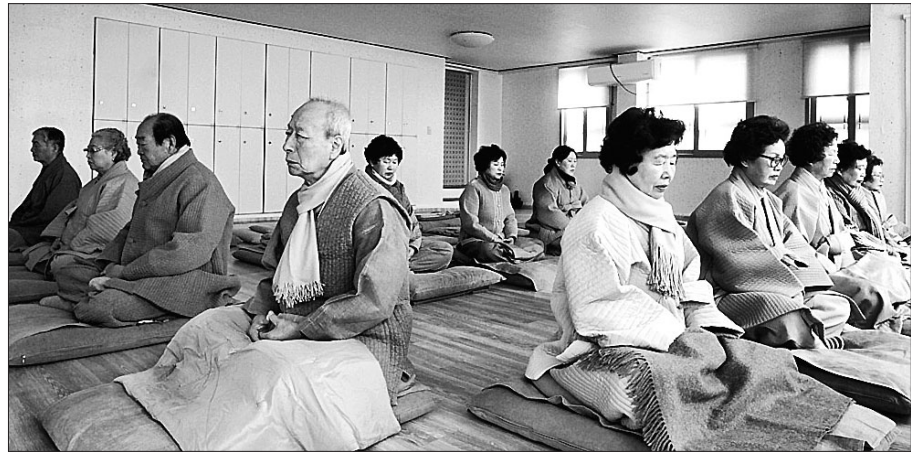
이와 함께 이날 토론회에서는 한국수행품도의 문제점을 짚는 자리도 마련됐다. 박희승 한국문화연구원 교수는 수행열풍이 높아지고 있지만 반대급부로 검증되지 않는 단체가 늘어나는 것에도 우려를 표했다.

박 교수는 “어떤 단체는 1주일 과정에 1500만원을 요구하기도 한다. 일종의 상품화로 인해 선이나 명상을 세속화 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사회 일반에서 명상과 같은 수행열풍이 불게 된 이유에는 불교 자체의 저변확대가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박 교수는 간화선 선풍확산에 이어 1990년대까지 불교대학서 교학을 배운 불자들이 실천수행에 눈을 뜨는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최근에는 명상과 선수행이 의학적으로도 치유효과가 있음이 밝혀지며 더욱 관심을 끌게 됐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재가



지난해 12월 부산지역재가안거 기간중 미타선원에서 열린 안거수행 현장 모습



금강 스님



윤종갑



박희승

자 수행은 반드시 선지식에 의해 검증받아야 한다”며 “출가수행자가 아니라도 바른 견해를 갖춘 이에게 의지하는 것이 자신만의 수행법에 빠져 잘못된 길로 나아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해남 미황사 주지 금강 스님도 수행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강 스님은 “깨침보다 결국 사람들의 삶이 중요하다. 이들의 삶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수행이 필요하다”며 “현대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생활방식이 다양해진 만큼 재가자 수행프로그램의 다변화가 필요한 시점으로 불법승 삼보에 대한 현대적 해석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신라 최대 가람 영축사, 조사 종합 보고서

울산박물관(관장 신광섭)이 2012년부터 연차적으로 ‘울리 영축사(시 기념물 제24호)’의 발굴조사를 진행하는 가운데, 이번에 1·2차 발굴조사 성과와 내용을 토대로 <울산 영축사-출토유물 자료집>을 발간했다고 1월 9일 밝혔다.

영축사(靈鷲寺)는 ‘삼국유사’에 신라 신문왕대(683년) 창건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사찰로, 통일신라시대 불교문화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울산 영축사-출토유물 자료집>은 1·2차 발굴조사 성과와 548점의 출토유물 중 중요 유물을 선정, 총 4부로 구성됐다.

1부 ‘영축사, 다시 숨을 쉬다’는 영축사의 창건 설화와 연혁, 영축사의 위치와 고고·역사적 환경, 지금까지의 발굴조사 현황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다.

2부 ‘영축사, 가람을 조성하다’는 영축사의 가람을 구성하는 금당지, 동·서탑지, 중문지, 회랑지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더불어 영축사의 대지(地) 조성 방법과 구부, 석등의 조사 성과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3부 ‘유물을 통해 영축사를 바라보다’는 1·2차 발굴조사에서 확인된 총 548점의 유물을 선별하여 소개하고 있다.

4부 <영축사,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는 영축사지의 발굴조사 성과와 발굴조사 계획을 담고 있다.

노덕현 기자

시민행성, 남도시민 인문강좌 마련

‘시민행성’(공동대표 조성택) 화성문화 아카데미는 2월 5~6일 남도 일원에서 ‘생각할 때 시민이다’를 주제로 남도시민 인문주간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이번 행사는 교사와 작가, 인문학자, 종교인 등 여러 시민들이 함께 지역사회 인문실천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프로그램은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달달한 인문학’과 청소년을 위한 ‘지혜학교’ 등 2개 강좌로 나뉘어 진행된다.

먼저 2월 5일 해남문화원에서는 △조성택 고려대 교수의 ‘생각할 때 시민이다’ 인문정신 종교정신 시민정신 △박수필 고전문학자의 ‘남도의 인문정신’ 실학 시대의 아름다운 만남에 대해 등이 진행된다. 또한 6일 해남문화원에서는 △황현산 고려대 명예교수의 ‘시는 어떻게 생각하

는 시민을 만드는가’ △이원 시인의 ‘시와 그림이 알려주는 생각들’이란 주제 강연이 진행된다. 같은 날에는 두류중학교와 해남고등학교에서 청소년 지혜학교도 열린다.

여기서는 △백승권 실용글쓰기연구원장의 ‘반짝이는 젊음, 성장을 위한 신나는 자기소개서 쓰기’ △함돈균 문학평론가의 ‘생각나라의 반짝이는 물건들’과 ‘생각하는 공부’는 사물들과 어떻게 만나나’ △이원 시인의 ‘생각 한 뼉 성장 두 뼉’ 등의 강연이 진행된다.

한편, 시민행성은 화성문화아카데미의 인문정신 실천과 인문실천자로서 ‘생각하는 시민’을 키우기 위한 인문실천공동체로 지난해 2월 해남 대흥사와 8월 평창 월정사에서 50여명이 참가한 인문캠프를 개최했다.

노덕현 기자

“불국사와 석굴암, 의상계 화엄학과 도량”

최연식 교수, 김상현 교수 1주기 추모세미나서 주장

8세기 중엽 김대성에 의해 건립된 경주 불국사와 석굴암이 의상계 화엄사상을 반영한 근본사찰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불국사 건립배경과 사상 기반에는 그 동안 법화, 밀교, 유가 사상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으며, 의상계 화엄사상은 김상현 교수가 처음 제기한 바 있다.

최연식 동국대 사학과 교수(오른쪽 사진)는 1월 30일 동국대 초하당세미나실에서 열린 ‘동아시아 화엄의 한국적 전개’ 세미나에서 ‘표현의 일승세계론과 불국사·석굴암’ 발표를 통해 불국사 건립배경에 화엄사상이 있음을 주장했다.

최 교수는 이날 “수도에서 멀리 떨어진 부석사에서 개인적 수행에 집중하던 의상계 화엄학파는 8세기 경주에서 활발히 활

약하며 불교계의 중심적 흐름으로 등장했는데, 그 중심에는 의상의 제자인 표훈 스님이 있었다”며 “김대성은 표훈 스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이로 일승세계설에 입각해 불국사와 석굴암을 건립했다”고 말했다. 이어 최 교수는 “김대성은 토함산에 일승세계설에 입각한 새 형태의 사찰을 만들고 이를 화엄학자들의 거점사찰로 제시했다. 석굴암은 부처의 영역, 불국사는 보현의 영역으로 석굴암 본존은 부처 정각 직후의 모습을 형상화했으며, 불국사는 연화장 세계를 묘사했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또한 이러한 일승세계관이 현재 전하지 않은 것은 9세기 중엽 의상계 화엄학파의 쇠퇴과정에서 중경조사들의 이론을 수용한 것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9세기 화엄학과 쇠퇴 이후 10세기 균여가 의상계 화엄사상을 새롭게 정비했지만, 전통사상의 계승보다는 법장, 정관 등 중국전통조사들의 이론을 수용해 기존이론을 보강하는데 그쳤다”며 “11세기 기말 의천 스님은 기존 의상계 이론이 정통 화엄조사 이론과는 이질적인 자의적인 것임을 지적하고 정통사상 수용에 역점을 두었는데 이 과정에서 표현의 신라적 화엄이론은 그 의미가 망각됐으며, 이런 흐름 속에서 석굴암과 불국사의 사상적 의미도 함께 잊혀질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이날 세미나에서는 이종수 순천대HK교수가 조선후기 화엄학 유행의 배경을 분석했다. 이 교수는 먼저 조선후기 선교일치적 수행풍토를 들며 화엄교학이 선종의 풍토 속에 강원의 발달과 함께 그



명맥을 유지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1681년 남도 지역에 전래된 가흥대장경은 지리산을 중심으로 많은 사찰에서 판각돼 그 중 <화엄소초>와 <회현>를 통해 강원 교육에서 화엄학이 유행하게 됐으며, 이후 불교계에서는 화엄학 강사를 찾아다니며 공부하는 분위기가 조성됐음을 예로 들었다. 이 교수는 “이로 인해 화엄강사들은 강의를 위해 사기를 저술했는데 이 화엄사기는 19세기 강원에서 계속 필사전승되며 전국적으로 유통됐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불광연, 제4회 전법학술상 공모

전법 교화에 대한 학술적 담론을 개발하고 현대사회에서 불교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모색하기 위해 불광연연구원(이사장 지홍)이 제정한 ‘전법학술상’이 네 번째 논문을 공모한다.

공모주제는 전법교화에 대한 불교사상에 대한 연구 분석, 역사적 사례와 전개과정 등에 대한 연구, 현대적 방법론 제시, 모범 사례 발굴과 해외사례 비교연구, 전법교화에 헌신한 인물에 대한 연구와 전법론 분석 등이다.

연구계획서는 홈페이지(www.burein.org)에서 소장 양식을 다운받아 오는 4월 30일 오후5시까지 전자메일(baramil74@hanmail.net)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완성 논문 마감일은 9월 30일까지다. 발표논문은 1년 이내 학술지에 기고한 전법학과 관련된 논문이어야 한다. 수상자는 시상식에서 발표해야 하며 연구원 학술지 <전법학연구>에 게재된다.

수상작은 10월30일 개별적으로 통보하며 발표회 및 시상식은 12월 6일 오후2시에 진행된다. 발표논문은 보현상 1편을 선정해 300만원의 상금을, 신규논문은 바라밀상 1편 500만원, 전법상 2편은 각각 300만원의 상금을 수여한다. 전공을 불문하고 박사과정 수료이상의 국내외 학자를 비롯해 승가대 학인, 군법사, 포교사, 종무원 등 불교기관 종사자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02)941-3537 노덕현 기자

각 분야별 권위있는 교수진과 열정적인 강의 www.dongsanbud.net

2015년 동산불교대학 46기 신입생모집[2년과정]

■ 모집학과 불교학과 [2월 7일(토) 오후 5시 개강]

● 토요일 [매주 토요일 오후 6시] ● 목요일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 통신반

1년차	과목	1. 인도불교 2. 중국·한국불교 3. 법화경 4. 화엄경 5. 대승불교와 정토 6. 밀교와 천수경
	교수진	법산스님(학장), 황순일교수, 차차석교수, 정영남, 주명철교수, 종승스님, 정성준교수
2년차	과목	7. 불교개론(이항경 1), 8. 불교문화와 포교, 9. 선불교 10. 근본불교(이항경 2) 11. 비아심경 12. 유식불교
	교수진	최중석교수, 이미령교수, 윤열수교수, 법인스님, 박희준교수, 김희규교수, 활인스님, 최봉수교수, 김형준교수, 모주스님

- 선·명상학과(위빠사나) [3월 5일(목)]
- 불교다도학과 [3월 10일(화)]
- 불교미술학과 [3월 5일(목)]

■ 모집인원(불교학과) 120명(토요일반, 목요일반, 통신반 각 40명)

■ 제 출 서 류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입학금 20만원

■ 원서교부 및 접수 2015년 1월 1일부터

■ 문 의 02) 732~1206~8

※상기 과정을 졸업한 후 한국불교교육단체연합회 포교사고시를 거쳐 포교사 자격을 획득함

DONGSAN 불교교육 전문기관 **동산불교대학·대학원**
본대학 사무처 : (우)110-140 서울시 중로구 우정국로 45-11 동산불교회관
TEL 02) 732-1206~8, FAX 02) 732-1207 www.dongsanbud.net

출강 및 통신 2015학년도 제 24기 법사학인 신입생 모집

불교교육(법사) 신입생 모집

뛰어난 불교교육과 공정한 법사자격을 원하십니까?

◆ 법사교육에 24년의 전통과 학적을 근본으로 하여 법사자격의 신뢰와 품위에 법통을 갖추실 수 있습니다.

◆ 공정한 법사자격을 갖추고 불교지도자로서의 실행생활에 기쁨과 행복을 함께 하여 보십시오.

- 공익법인 한국불교법사총연합회에서 법사자격 범위증이 수여됩니다.
- 불교학전공 저명한 교수진으로 강의 진행됩니다.
- 불교를 쉽게 이해 정립되도록 지도교육합니다.
- 불교기본의식을 실습, 지도합니다.
- 법사품수 후 사찰·포교원 등로서 행정상 보호받도록 지원합니다.

“불교법사 양성 전문교육(1년제)”

모집과정	· 법사과정 (1년) · 대법사과정 (2년)
	· 불학연구원과정 (5년) · 불교석학과정 (2년)
모집학반	· 출강반 · 통신반
입학자격	· 불심이 돈독한 분 · 불교를 체계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분 · 교육수료 후 법사로서 포교활동을 희망하는 분 · 포교원 및 사찰을 개원하려는 분 · 불교지도자로서 사회에 봉사하려는 분

- ◆ 원서 교부 및 접수 : 2015년 2월 27일까지(현재 접수중)
- ◆ 원서 교부 및 접수처 : 본 대학 교무처(방문·우편·팩스·메일) 부산교육원 ☎ 051-466-1959 · 제주교육원 ☎ 064-751-1959
-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모집요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깨달음의 법(法) · 전법하는 사(師)

한국불교법사대학·대학원
서울특별시 중로구 우정국로 45-3 (건지동, 한선빌딩 3층)
http://pubsa.buddhism.org FAX : 02)737-5305

☎ 02)733-1959
720-1836